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야구중계 기대하세요”

트로트 가수 오은재씨, CMB광주방송 KIA 흥경기 캐스터 도전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야구경기를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터에서 MC로, MC에서 가수로 변신을 거듭하며 카랩과 같은 매력을 뽐내고 있는 트로트 가수 오은재(32)씨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오씨는 이 달 중순부터 해설위원을 맡은 김성한 전 KIA 감독과 호흡을 맞춰 CMB 광주방송 2011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흥경기 중계 캐스터로 활동을 시작한다.

오씨의 이력은 독특하다. 10년 전 KBS 6시 내 고향의 리포터로 처음 활동을 시작한 이후 방송과 라디오를 오가며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지역민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해 평생 꿈꿔 왔던 가수의 꿈을 뒤늦게나마 이뤄 타이틀곡 ‘사이 사이’로 활동중이다.

“지난 10년 동안 방송인으로 활동하면서 말로 하

는 일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라디오 진행, 방송 진행, 대학 강사, 스피치 강사, 성우 그리고 가수까지 말입니다. 이번 야구 캐스터가 마지막 도전이라는 생각으로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준비중입니다. 기대 하셔도 좋습니다.”

최근 오씨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기만 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포츠 신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야구와 함께 하루를 마감한다. 중계를 앞두고 야구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8개 구단 선수 이름에서부터 규칙, 그리고 팬들이 좋아하는 것까지. 공부하고 공부해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기만 하다. 물론 경기장을 찾기도 하고 KIA 타이거즈 중계방송도 빼놓지 않고 시청한다.

“룰러코스터처럼 스릴 넘치는 야구 경기를 팬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

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팬들에게 멋진 경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성 최초 프로야구 캐스터였던 윤영미 전 SBS아나운서도 시작은 힘들었다고 합니다.”

오씨는 프로야구 캐스터 제의를 받고 선뜻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다.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무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심사숙고했다. 야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도 않은데다 최근 야구 팬들의 수준도 높아 팬들에게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오씨는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는 김선빈의 화려한 야구가 캐스터 도전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하는데 한 몫을 했다”며 “저도 키는 작지만 언제나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중계로 팬들에게 사랑받는 캐스터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찾은 연예인 축구단 불우이웃돕기 친선경기



연예인 축구단 FC 시스템은 가수 탁재훈이 단장 맡고 있다. 이날은 이수근, 한민관, 이현도 등 FC 시스템 소속 20여명이 참석해 포르테FC와 경기를 펼쳤고 수익금 전액은 광주시지역아동복지협회, 하버드아동복지센터, 참사랑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됐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자전거여행 스티븐스 “주렁주렁 영광굴비 장관”

“가게 창문마다 주렁주렁 예인 말린 굴비가 달려있는 모습, 장관이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자전거를 타고 전남 지역을 둘러보며 생생한 여행 소감을 공개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지난달 28일부터 10일 일정으로 서울~목포~진도 자전거 여행길에 올랐으며 일주일째인 지난 3일부터 영광 등 전남을 여행중이다.

특히 부안~고창을 거쳐 영광에 도착한 3일에는 법성포 일대 줄지어 늘어선 굴비 상가를 지나치며 느낀 감정을 그의 블로그 ‘심은경의 한국 이야기’를 통해 솔직하게 전달했다.

그는 또 “굴비는 원래 특별한 날에만 먹던 아주 귀하고 맛있는 선선이자, 전통적으로 왕실에서 즐겨먹던 음식”이라며 “오늘 하루 힘들게 자전거로 달려왔으나 굴비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꼭 주겠다”고 한 정기호 영광군수의 말도 전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이어 ‘법성포 단오굴비축제’ 개막식에 참석, ‘영광에 영원한 영광을!’이라는 기원을 담은 풍등을 점화한 얘기도 소개했다.



그는 블로그 말미에 “분주했던 하루 일정에 눈부신 풍경과 따뜻한 환대로 완벽한 하루”라고 적었다. 한편, 스티븐스 대사는 지난해에도 6·25 전쟁 60주년을 맞아 한국 대학생 50여명과 자전거를 타고 남해에서 대구까지 약 300km, 600리 구간을 돌아온 ‘자전거 마니아’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정석원 내장산 백암사무소장 대통령표창

정석원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장이 지난 3일 계룡산국립공원에서 열린 ‘제16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정 소장은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자연자원 보전을 위한 특별보호구역 지정, 특별보호종 보호방안 강구 등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소장은 지난해 8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공동으로 녹색기업협의회와 전남지역 국립공원 6개 사무소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남도 생



태관광 바우처 프로그램을 기획 621명이 수혜를 받는 등 남도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정 소장은 입암산성 습지의식 물 및 식생, 수문 등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조사를 해 입암산성 습지를 신규 특별보호구(17만9068㎢)로 지정했으며, 랍사로 습지 또는 국가 보호습지로 등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중부최재봉부=김용호기자 yongho@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이계평씨 최고령 장원

전남도는 ‘2011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대회’를 개최한 결과, 이계평씨가 75세 이상 부문에서 장원에 해당하는 금상을 수상하는 등 9명이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목포·순천

등에서 치러진 대회는 55~64세, 65~74세, 75세 이상 등 3개 부문에 서 문서 작성, 인터넷 검색 등으로 실력을 겨뤘다.

75세 이상 부문에서는 이계평(여수시 광무동)씨가 금상, 손이봉(목포시 산정동)씨는 은상, 이재희(순천시 풍덕동)씨는 동상을 수상했다. 65~74세 부문은 오춘자(순천시 상삼리·금

상), 남호웅(여수시 문덕동·은상), 김준경(목포시 석현동·동상)씨가 각각 수상자로 결정됐고 55~64세 부문 수상자는 최규정(장성군 북일면·금상), 이은연(진도군 진도읍·은상), 박귀옥(목포시 산정동·동상)씨 등이다.

부문별 수상자 9명은 오는 15일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본선대회에 전남 대표로 참가한다.

/김지율기자 dok2000@

4246~9.

▲적십자사 수지침 봉사회 회원 =매주 월·수·금 오전 10시~11시, 화·금 오후 7시~8시 30분.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염주체육관 11호 장구교실 062-371-4242.

▲사랑모아 가족복지회 회원 =종이공예·독서모임·성교류 스터디 강사,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 모집 062-385-0422.

▲아카데미 지원봉사협의회 회원 봉사자 =월 3~4회 노인 돌봄미·노인 무료급식·환경 사우대 활동 가능한 봉사자 모집 062-412-3201.

▲부동산 경·공매 동호회원(무료) =기초부터 현장 답사, 물건·채권 권리분석, 부동산 미래가치 및 환금 분석 등. 010-607-4614.

▲유급지원병(전문병) =중졸 이상 학력으로 해당 특기 자격·면허 또는 전공학과 이수자. 모집 인원 1 천명. 의무복무기간은 일반병과 동일, 연장복무기간은 하사로 영내 거주하며 이 기간중 월 120만원·지원 장려수당 월 60만원 지급. 광주전남 지방병무청 협력입영팀 062-230-

▲종합민요사랑모임 회원 =민요를 사랑하며 사회 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0-601-6989.

▲100원회 회원 =1일 100원으로 부담없이 이웃 사랑 실천하실 분

011-666-0660.

▲사랑의 교실 중·고등학교 과정

교사, 수강생 =국어·영어·수학·사

회과목 무료 봉사자, 월~금요일 오

후 7시~10시 30분. 062-223-8529,

016-223-9541.

인사

◆광주MBC

▲편성제작국장 이연수 ▲보도국 영상취재부장 김영범 ▲편성제작국 제작지원부장 박수현 ▲보도국장 최영준 ▲경영기획국 기획실외부장 이강세 ▲편성제작국 편성제작부장 곽관주 ▲보도국 취재부장 박용택 ▲편성제작국 편성제작부 이창수 ▲보도국 영상취재부 윤순진

광주체육고 정수라, 불자장학생 선정



광주체육고 양궁팀 정수라(1년)가 대한불교조계종 체육인불자연합회에서 선발하는 2011년 광주지역 체육장학생에 최근 무기사에서 장학증서를 전달받았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달성한 정수라는 2011년 제25회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에서도 5관왕에 오른 유망주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임영호·김명자씨 장남 융채(광주 도시철도공사)군 백성중·정영화씨 장녀 선형(영주초등학교 교사)양 =11일(토) 오전 11시 30분 문흥동 성당(문흥고가) 맡)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동창·동문회

▲목포고 5회 동창회(회장 정병선) 월례회=7일(화) 오후 6시 금강산 식당 062-224-0808.

▲한국웃음요가연구소(소장 김영식 박사) 국제 웃음요가 지도자 양성 =웃음치료, 웃음요가 무료 상담 www.hahayoga.co.kr 062-381-8254, 011-9374-7482.

▲늘 기쁜 지역 이동센터 공부방 무료 수강생=초등학생, 방과후 숙제 및 학습 지도 062-511-6771.

▲전통문화예술단 굴림 무진농악단·은빛국악단 회원 및 강습생=평일·주말반(수·오후 3시), 난타반(목·오후 3시), 장구초보반(화·오후 7시30분), 중급반(월·저녁 7시30분).

▲우리문화연구회 소리노리 풍물

놀이 및 장구기초, 민요, 한춤 회원

=매주 월·수·금 오전 10시~11시, 화·금 오후 7시~8시 30분.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염주체육관 11호 장구교실 062-371-4242.

▲사랑모아 가족복지회 회원 =종이공예·독서모임·성교류 스터디 강사,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 모집 062-385-0422.

▲아카데미 지원봉사협의회 회원 봉사자 =월 3~4회 노인 돌봄미·노인 무료급식·환경 사우대 활동 가능한 봉사자 모집 062-412-3201.

▲부동산 경·공매 동호회원(무료) =기초부터 현장 답사, 물건·채권 권리분석, 부동산 미래가치 및 환금 분석 등. 010-607-4614.

▲유급지원병(전문병)=중졸 이상 학력으로 해당 특기 자격·면허 또는 전공학과 이수자. 모집 인원 1 천명. 의무복무기간은 일반병과 동일, 연장복무기간은 하사로 영내 거주하며 이 기간중 월 120만원·지원 장려수당 월 60만원 지급. 광주전남 지방병무청 협력입영팀 062-230-

▲종합민요사랑모임 회원 =민요를 사랑하며 사회 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0-601-6989.

▲100원회 회원=1일 100원으로 부담없이 이웃 사랑 실천하실 분

011-666-0660.

▲사랑의 교실 중·고등학교 과정

교사, 수강생 =국어·영어·수학·사

회과목 무료 봉사자, 월~금요일 오

후 7시~10시 30분. 062-223-8529,

016-223-9541.

인사

◆광주MBC

▲편성제작국장 이연수 ▲보도국 영상취재부장 김영범 ▲편성제작국 제작지원부장 박수현 ▲보도국장 최영준 ▲경영기획국 기획실외부장 이강세 ▲편성제작국 편성제작부장 곽관주